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2월 22일(금)

(음력 1월 18일)

Пятница

22 февраля 2019г.

№ 7(11682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2월 20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옥짜브리>영화관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평화통일페스티벌이 펼쳐졌다.
(관련 기사 2, 7면.) (이예식 기자 촬영)

친애하는 사할린주민 여러분!

2월 23일을 우리는 조국 수호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조국을 수호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명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러시아에서는 항상 전투의 공로를 높이 사고, 침략자의 길에서 처음으로 분연히 항거했던 병사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지금도 먼 곳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조국을 수호하는 모든 이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대조국전쟁에서 조국을 지켜내고 국지적 분쟁 속에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한 원로들에게 '감사'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강건함과 평화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명절인 조국 수호자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대행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두마, <쿠릴열도는 우리 것이다>라고 성명

지난 19일(화) 아침 9시 사할린주두마의 긴급총회가 소집되었다. 사할린주두마 의원 28명 중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쿠릴열도 영유권 문제를 논의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사회여론조사단은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쿠릴열도의 영토 주권을 주제로 3개 쿠릴 섬(쉬코탄, 쿠나쉬르, 이투루프)에서 주거등록을 하여 영구 거주하는 주민들 중 18세이상의 주민 7695명(거주자의 2/3)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센터의 전문가 32명이 진행하고 자원봉사자 20명이 도왔다. 조사는 거주지역 동네, 직장, 특별 설치된 설문조사마당에서 진행한 가운데 쿠릴 주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주두마 회의에서 러시아사회여론조사센터의 콘스탄틴 아브라모브 이사장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밝혔다.

조사단은 2가지 질문만 했다. 첫 질문 '일본이 쿠릴열도에 대한 영토 영유권을

분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아는가?'에 주민 98%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 질문은 '쿠릴열도를 일본에 양도해야 하는가? 아닌가?'란 질문에는 '넘겨야 한다.'라고 2%, '대답하기 어려움' 2%, '아니다'라고는 96%가 응답했다.

"쿠릴열도는 우리 것이다"라는 사할린 주민들의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기 위해 사할린주두마 총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언론과 기관에 전하고 알리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 후 사할린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대행은 "나는 단순히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사할린 및 쿠릴 주민들, 의원들이 표명한 입장을 지지합니다. 나는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지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입니다."라고 주내 언론인들에게 밝혔다.

(배순신 기자)

사할린주, 인재선발경연 시작

2월 18일 사할린주에서 <사할린주 팀>이란 인재선발경연이 시작되었다. 사할린주 정부의 주도로 경연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목적은 인재문제 해결, 정부 부처, 행정부, 교육기관 등에 젊고 활동적인 인재를 등용하여 <발전의 돌파구>를 찾아낼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참가희망자는 komandasaxalina.rf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 사할린주 정부에서 있는 기자회견에서 사할린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은 구성된 팀은 피끓는 청년들로서 일을 주도

해 가야 한다고 했다. 선발과제로는 주택건축, 공공주택산업 교육, 보건 등 관련 큰 과제를 성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얻고 가능성을 진척시키고 유익하도록 하려는 조건을 조성하려고 한다며 주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체 등에 새로운 젊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지사 대행에 따르면 우승자들은 부지사, 장관 또는 청장 등 직위에 오를 기회도 주어진다.

이 기획 실시에 <러시아는 가능성의 나라다>비영리 단체가 협조하고 있다.

경연에는 20세부터 45세까지의 희망자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첫 단계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다음은 직접 참가해야 한다. 주최 측은 첫 단계에서 200여 명 정도가 통과할 것으로 보고 2단계에서 우승자 50명은 우선적 채용의 기회를 얻고, 그중 최고점을 얻은 10명은 이들 교육을 위한 100만 루블리의 보조금을 지급, 15명에게는 사회적 기획을 실시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와함께 이들에게 사회로 진출하도록 돕는 지도감독관을 제공한다.

3월 중순에 1단계 결과를 발표 4월 20일에는 최종 우승자들이 발표된다.

(배순신 기자)

단신

새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출장소
소장으로 광기동 부임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황명희 소장의 임기가 끝나 2019년 2월 19일부터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 출장소에 새 소장으로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광기동(1962년생) 부총영사가 부임했다.

부산 출생인 그는 1990년에 외교부에 입부하고 주고베 총영사관 영사, 주파나마 대사관 2등 서기관, 외교부 여권계장,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영사 등 역임한 바 있다. 기혼. 자녀 1남1녀.

유즈노사할린스크, 극동 소수민족
언어 학술회 개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2회 러시아 극동 원주민 소수민족 언어 국제학술회가 사할린박물관연합회 주최, 사할린주 정부와 <사할린 에너지>회사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올 행사에는 극동지역 북방소수민족들, 교육 및 문화기관의 직원들, 지역역사 연구가와 언어학자 등 50여 명이 참가한다. 학술회는 전체와 분과 모임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현대세계에서 민족의 언어, 소수민족의 가족적 가치, 교육과 문화기관의 기회, 대중적 언론공간, 언어적 표현에 대한 지식의 확산을 주제로 다룬다.

학술회 일환으로 여러 전시회가 열리며 사할린섬의 자연과 원주민의 삶을 반영하는 <이것이 사할린이다>란 사진전이 열린다.

유엔 총회는 2019년을 세계 원주민 언어의 해로 선포했다. 제2회 학술회는 세계 모국어의 날에 열린다. 개회식은 2월 21일 10시 <스톨리차>비즈니스센터에서 시작되었다.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평화 통일 축제>가 2월 20일 7시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옥짜브리> 영화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사할린에서 개최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럽지역회의가 주최하고 민주평통 블라디보스톡협의회·사할린주 한인협회 주관하고, 사할린주

3.1운동 100주년 기념 평화 통일 페스티벌

"100년 전 우리 선열들이 세우고 일궈냈던 그 고귀한 뜻이 이제 바로 서야 합니다."



정부·주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주유즈노사할린스크 영사출장소)·사할린한국교육원이 협조했다.

사할린에서 3.1절 행사를 가지게 된 것도 처음인데다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의 무게에 사할린 한인협회는 준비를 일찌기 해왔다. 이날극장은 내빈들로 만석을 이뤘고 그 어떤 축제보다도 한민족 저항운동의 의의를 새기려는 열의가 내빈들의 눈빛 속에 가득했다.

내빈 중에 한인 2세는 부모님 세대에서 발생했던 3.1운동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며 회상했다. 기념식에서는 행사차 사할린을 방문한 귀빈들 민주평통 자문회의 - 박종범 유럽부의장, 이경종 블라디보스톡협의회 회장, 박종은 영국협의회 회장, 박용규 중부 유럽협의회 회장, 유옥경 모스크바협의회 회장 - 의 인사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과 이상민 의원, 광귀동 사할린출장소 소장, 알렉

세이 부푸하노브 사할린주 경제발전부 부장관을 소개하고 이들 중에서 행사를 축하하는 축사를 전했다.

박종범 민주평통자문회의 유럽부의장은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열과 발자취가 남아있고 그 후손들이 살아 숨쉬는 사할린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평화 통일 축제'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했고, 이경종 블라디보스톡협의회 회장은 피와 땀으로 세운 선배 한

인들의 뜻이 온전히 서지 못하여 분단과 분열, 암제의 권력이 현존하고, 이기심과 책임 회피와 의존적 삶의 태도로 현실에서 있는 우리가 이제는 100년을 맞아 선열들이 세우고 일궈냈던 그 고귀한 뜻이 이제 바로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국회의원들은 "고통당하고 설움으로 사무쳤던 고향 그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이 쓰려고 한다. (7면에 계속)

이 모 저 모

사할린박물관들, 님프문자를 기념하는 경연 개최

사할린주 박물관연합회와 <사할린 에너지> 회사는 <님프민족의 문자(아즈부카)> 경연의 시작을 알렸다. 이 경연은 블라디미르 산기가 창제한 님프민족의 현대적 문자 40주년과 국제소수민족 문자의 해를 기념하는 일환으로 진행된다.

경연에는 님프민족의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언어의 역사와 운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모두 참가할 수 있다.

경연은 3부문으로 설정되었다.

1. <문학적 작품>(문자에 대한 이야기)부문. 이 부문에서는 님프민족의 하나의 문자 또는 몇몇 문자에 대한 전설, 수필(에세이), 동화를 접수한다.

2. <장식예술>부문. 님프민족의 문자를 다양한 기술로 형상화한 공예품을 접수한다.

3. <회화>부문. 님프문자의 그림 및 그래픽 디자인. 경연의 조건은 참가자가 반드시 순수 제작한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작품은 2019년 3월 10일까지 주소(유즈노사할린스크시, 프로스펙트 미라, 104)로 접수한다. 문의 전화는 8(924)280-5744.

경연의 결과는 2019년 3월 18일에 발표된다.

Конкурс, посвященный нивхской азбуке, проведут музеи Сахалина

Ассоциация музее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объявляют о начале конкурса "Нивхская азбука". Он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40-лет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нивхского алфавита, создателем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Владимир Санги, и междуна-

родного Года языков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В конкурсе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не тольк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ивхского народа, но и все, кому интересна история и судьба этого уникального языка.

В рамках конкурса утверждены следующие номинации: Номинация "Литературное творчество" ("Сказ о букве"). На конкурс принимаются сказки, литературные эссе, легенды об одной или нескольких буквах нивхского алфавита;

Номинация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е творчество". Принимаются изделия ДПИ в любой технике, изображающие одну или несколько букв нивхского алфавита.

Номинация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творчество". На конкурс принимаются рисунки (живописные и графические работы), изображающие одну или несколько букв нивхского алфавита. Обязательное условие — работа должна быть создана лично участником конкурс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срок до 10 марта 2019 года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оспект Мира, 104.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 8(924)280-5744.

Подведение итогов конкурса состоится 18 марта 2019 года.

극동을 알릴 문학작품 공모

사할린주 정부는 사할린지역 주민들에게 <극동> 러시아 문학상 공모전에 참가를 제안했다. 이 문학상은 여행가이자 지리학자, 민속학자이며 작가이자 극동지역 연구가인 블라지미르 아르세니예브를 기념하여 올해 제정되었다.

주 정부에 전달된 사항으로는 문학상 공모전에는 러시아 작가들이 극동지역을 주제로 하여 집필한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문학상은 극동 연방구 러시아대통령 전권대표인 유리 투르트네브 부총리가 주도하여 제정되었다. 주 목적은 현대 작가들에게 극동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해 러시아와 세계에 이야기하게 하고 이 지역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데 있다. 장르는 자유로 장편소설, 중편소설, 단편집, 동화, 논픽

션 산문, 회상록 등이다. 작가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작품을 러시아어로만 써야 한다는 것이 주요 조건이다.

응모 접수는 2019년 6월 30일까지 <http://премияарсеньева.рф>로 진행할 예정이다.

9월 말에 주최 측은 수상 후보작들을 공지하고 11월 말에는 각 수상 부문에 5개의 후보작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상 부문은 <장편>, <단편>, <동화>에서 2019년 12월에 선정작을 발표한다.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ожили написать книгу, которая прославит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оборются за всероссийскую литературную премию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редлагают жителям островов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а учреждена в этом году и посвящена Владимиру Арсеньеву — путешественнику, географу, этнографу, писателю и исследовател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в конкурсе с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произведения российских авторов на тему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емию учредили по инициативе полпреда президента в ДФО Юрия Трутнева. Ее основная цель — позволить современным авторам рассказать о жизн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всей России и миру и привлечь интерес к региону. Жанр книги не имеет значения: принимаются романы, повести, сборники повестей или рассказов, а также документальная проза и мемуары. Не имеет значения и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автора, главное условие — писать тексты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премии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до 30 июня 2019 года на сайте <http://премияарсеньева.рф>. В конце сентября организаторы объявят длинный список финалистов, а в конце ноября — шорт-лист, в который войдут не более 5 произведений в каждой номинации. Победителей в номинациях «Длинная проза», «Короткая проза» и «Проза для детей» определят в декабре 2019 года.

(8면에 계속)

<아시아 아이들> 게임 성화리에 폐막

지난 16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제1회 <아시아 아이들>국제청소년동계게임이 성화리에 막을 내렸다.

첫 <아시아 아이들>동계게임은 20개국에서 27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폐막일에는 유명한 <굴룬>야쿠츠크무용단, 모스크바 및 페테르부르크 아이스발레단, 사할린 무용단, 예술학교 학생 등이 화려한 무대를 보였다.

사할린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 유명 하키선수인 왜채슬라브 페티소브, <아시아 아이들>게임 회장 드미트 글루쉬코가 이날 따뜻한 인사를 전하며 이번 게임은 진정한 스포츠잔치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8개 종목(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점프, 피겨, 쇼트트랙, 스노우버드,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에서 경쟁을 한 약 1200명의 선수들에게 93 메달 세트를 수여했다. 팀별 메달 획득으로는 사할린 팀이 3위를 차지하고 1위는 우랄연방구팀, 2등은 모스크바 팀이 차지했다 했다. 그리고 경기 마지막날까지 1위를 달리던 한국팀은 4위로 내려갔다. 이번 대회는 참가했던 젊은 선수들과 자원봉사자들 간에 좋은 교류의 장이 되었고 사할린 측은 대규모 스포츠 행사 개최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쌓게 되었다고 한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민주평통 유럽지역회의 자문위원과 사할린 고문들의 바쁜 일정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민주평통 유럽지역회의가 주최하고 민주평통 블라디보스톡협회가 주관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약 60명의 민주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협의회 자문위원, 언론인 등이 2월 18-21일 3박4일 일정으로 사할린을 방문했다. 18일



▲ 박종범 부의장



▲ 이종걸 국회의원



저녁에 민주평통 유럽지역회의 박종범 부의장 주최로 환영만찬이 열려 세계 여러 곳곳에서 온 자문위원들의 사할린 일정이 시작되었다. 민주평통 사할린 고문들이 그 일정을 함께 했다.

19일(화) 오전에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유럽지역회의 운영위원회가 있는 후 사할린 동포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사할린주 한인노인회 김홍지 회장은 사할린 한인사를 간단히 소개하고 영주귀국 등에 대한 사할린한인단체들의 노력을 소개했다. 주이산가족협회 이수진 명예회장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할린 한인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으며 <사할린>텔레라디오공사 우리말방송 김춘자 국장은 사할린잔류 한인들을 위해 한국국회에서 사할린한인지원특별법을 통과하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오후 일정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할린 평화통일강연회로 모였다. 약 100명이 모인 가운데 박종범 민주평통 유럽부의장 개회사, 이경중 민주평통 블라디보스톡협의회장 환영사, 전남경 민주평통사무처 위원활동지원국장 축사로 개회식이 이루어졌다. 이날 특별 강연은 이종걸 국회의원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이 했다. 이종걸 국회의원은

<세 독립선언으로 살펴본 독립운동과 지나온 100년>이란 주제로 3.1운동, 독립선언의 특징,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활동, 현대의 남북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참고) 이종걸 의원의 조부는 유명한 독립운동가, 교육자, 사상가인 우당 이회영(1867-1932) 선생이다. 이종걸 의원은 그의 손자이다. 우당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이 침탈되자 형제들과 함께 전 재산을 다 팔고, 집안의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해외로 이주해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만주 용정에 신학문을 교육할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을 배출시켰다. 우당 선생 밑의 동생 이시영은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했다. 1948년-1951년까지는 대한민국의 제1대 부통령을 역임했다.

1시간 예정인 이 강연은 2시간으로 이어졌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은 <한반도 분단 시의 종언과 평화시대의 개막>(평화를 위한 대장정)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평화', '통일'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시작해 '역사를 잊

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일제식민과 분단... 아예 가르치지 않았다. 식민지시절의 독립운동과 분단 극복, 통일운동은 같다. 우리는 왜 모르는가? 분단은 가르치지 않았다." 김 강사가 강조했다.

그리고 "분단은 땅만 가르친 게 아니다!" 라면서 "사람도, 가족도, 공동체도...가르고, 역사도, 민족의 정신사도 왜곡하고 갈라놓았다. 사람들의 생각도, 세계관도...가두고 변질시켰다. 우리는 섬나라인가? 대륙국가인가? 분단의 폐해, 분단비용, 분단문화 등, 국민 불행의 근원/토대, 적폐 중의 근본 적폐는 분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풍부한 바다 생물이 유명한 완도군 소개가 있었고 프랑스 한 인사가 간략하게 소개되었다. <프랑스 한인 100년사>가 서울에서 출간한 소식도 이상무 편찬위원장이 전했다.

20일에는 사할린 문화역사탐방을 한 이후 저녁에 3.1절 100주년 기념 주요 행사가 <옥좌브리>영화관에서 펼쳐졌다. 이날 환송만찬은 주한인협회 주최로 진행되었다.

이번 3.1절 100주년 사할린행사 진행, 민주평통 위원 등 방문단 접대에는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의 노고가 컸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е движение в Корее

Движение 1 марта или Движение Самиль (кор. 삼일운동,三一運動) — одно из самых ранн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рейских движений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го господства. Название ему было дано после инцидента, происшедшего 1 марта 1919 года.

История

У истоков движения были «Четырнадцать пунктов» и объявленное в январе 1918 года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Вудро Вильсоном право слабым нациям на самоопределение. После этого заявления корейские студенты, учившиеся в Токио, обнародовали требование о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Когда новость об этом проникла в Корею, был образован подпольный комитет, состоящий из 33 человек, представлявших Чхондогё, буддизм и христианство, включая Сон Бён Хи. Были разработаны секретные планы по свержению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Было решено начать восстание за два дня до похорон экс-императора Коджона. С точки зрения участников восстания эти похороны положили конец не только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но и последнему символу независимости.

В 2 часа дня 1 марта 33 корейских патриота, составлявших ядро движения Самиль собрались в ресторане «Тхэхвагван» (кор. 태화관) и зачитали декларацию независимости, составленную корейским историком и писателем Чхве Нам Соном. Изначально предполагалось устроить собрание в парке пагод в центре Кэйдзё, однако решение было изменено из соображений безопасности. Лидеры движения подписали документ и послали копию японскому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у Хасэгаве Ёсимити. Затем они позвонили в полицию и заявили о своих действиях, после чего были арестованы.

Несмотря на меры предосторожности, принятые лидерами движения, оно быстро разрослось — в парке пагод собрались толпы людей, перед которыми был зачитан текст декларации. После этого толпа организовала процессию по улицам Сеула, которую разогнала японская полиция, убив более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и ранив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Около 47 тысяч человек было арестовано.

Подавление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выступления японцами

Одновременно декларация была зачитана и в других городах страны в то же время, однако и в провинции движение было жестоко подавлено японской полицией.

Однако протесты не прошли незамеченными. На помощь полиции и жандармерии была призвана армия Японии.

В конце марта японские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заявили, что в ходе подавления протестов было убито 553 человека, арестовано 12 тысяч. Корейские источники говорят о цифрах на порядок больше.

Окончательно восстание было подавлено через год. В нём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около 2 миллионов корейцев. Состоялось более полутора тысяч демонстраций. Погибло около 7 тысяч человек.

Международную огласку инцидент не получил, вследствие чего корейское движение сопротивления осознало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пираться на собственные силы в борьбе с японцами.

Одним из итогов движения 1 марта стала смена имперской политики Японии. Поняв неэффективность силов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ореей (и желая иметь 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й вид в глаз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новый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 Сайто Макото провозгласил политику «культур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это выразилось, в частности, в ослаблении цензуры и начале выдачи разрешений на публикацию частной печатной продук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атериал из Википедии — свободной энциклопедии)

100-летию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МИРА И ОБЪЕДИНЕНИЯ

К 20 февраля на сцене киноконцертного зала «Октябрь» состоялся Фестиваль мира и объединения, посвященный 100-летию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стали Европейская секция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по мирн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нации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его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е отделение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ть вместе с сахалинцами столетие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собрались корейцы из разных концов света: Англия, Австрия, Финляндия, Франция, Италия, Кувейт, Китай, США, Израиль,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Москва, Хабаровск, Владивосток и т.д.

Около 60 человек (члены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по мирн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депутаты парламента РК, журналисты и т.д.) прибыли на Сахалин 18 февраля и в течение 4-х дней участвовали в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в т.ч. во встрече с саха-

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а также спецсеминаре, где услышали лекции о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м движении и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воссоединению Кореи.

Зарубежные гости стали актив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Церемонии в честь столетия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состоявшегося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Обрядившись в национальную одежду и школьную форму тех лет, они зачитали Декларацию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торая прозвучала из уст 33-х корейских патриотов 1 марта 1919 г.

Организаторы и почетные гости Фестиваля говорили о том, как это значимо - отметить 100-летие такой знаменательной даты на когда-то многострадальной для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На фестивальной сцене произошло награждение лучших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изучающи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у. Они были премированы стипендиями Европейской секции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по мирн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нации (10 премий по 1000 евро).

Зам.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Пак Ден Бом вручил также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й знак президенту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за организацию и активную помощь в проведении Фестиваля мира и объединения.

Концерт прошел силами артист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рус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Зрители были рады национальным корейским танцам, инструментальным композициям, хип-хопу, классическому пению, русским народным песнями и танцами.

Завершился фестиваль совместным хоровым выступлением корейских артистов 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самодеяте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Вместе они исполнили песню «Моя страна – моя нация» и самую главную песню воссоединения «Наше желание(наша мечта)».

Виктория Бя

В 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е на 1000 мужчин приходится 500 женщин

У сахалинских статистиков вошло в традицию к праздникам готовить подборку данны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тому или иному чествованию. К приближающемуся Дню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Сахалинстат подготовил некоторые цифры о мужчина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живает 236 тысяч мужчин, что составляет 48%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жителей. Из общего числа мужчин 65% — люди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возраста. На долю юношей до 16 лет приходится 21%, старше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возраста — 15%.

В целом по области на 1000 мужчин приходится 1075 женщин (в РФ — 1156 женщин, в ДВФО — 1083 женщины). Число женщин преобладает в городской местности — 1098 женщин на тысячу мужчин. Однако в селах соотношение следующее — 979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лабого пола на тысячу пола сильного. Та же закономерность наблюдается в Анивском,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Смирновском,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где на тысячу мужчин

женщин приходится меньше. А в Куриль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 всего 500 женщин на 1000 мужчин. Среди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еобладание муж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над женским наблюдается в Чукотском автономном округе, где на 1000 мужчин приходится 967 женщин.

В возрасте 35-39 лет расхождение в соотношении полов уравниваются, и, начиная с 40 лет, отмечается численное превышение женщин над мужчинами. С возрастом эта разница все более увеличивается, причем в городской местности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Такое неблагоприятное соотношение полов сложилось из-за сохраняющегося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преждевременной смертности мужчин.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ильного пола, проживающи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авляет 36 лет (по России 37,1 года, по ДВФО — 35,6 года).

Из родившихся малышей более половины (51%) — мальчики. Среди учеников общеобразова-

тельных школ в нынешнем учебном году большинство (51%) составляют мальчики. На долю юношей в средних специальны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приходится 55%.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лучают 48%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ильного пола от всего количества студентов.

В различных видах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52% работников — мужчины. Традиционно мужскими являются такие виды деятельности, как строительство — 86%, добыча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 72%, транспортная сфера и связь — 63%, производство и распределение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газа и воды — 74%.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работающих мужчин — 41 год, из них имеют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25%, средне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 23%.

На конец 2018 года в службе занятости состояли на учете 1,3 тысячи официаль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безработных, из них 54% — мужчины,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тат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1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МИД России: Участились случаи задержания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за нелегальную труд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РК

По информации МИД РК,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участились случаи задержаний и депорт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за незаконную труд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этой страны.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18 февраля на странице консульск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Д России в Facebook. Российское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е ведомство напоминает, что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е соглашение о взаимной отмене визовых требований от 2013 года н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и безвизового въезда с целью осуществления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Такое нарушение миграцион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лечёт за собой депортацию и неразрешение въезда на территорию указа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В КНДР появились три новые страховые компании

В период с августа 2016 по октябрь 2017 года в КНДР появились три новые страховые компании. Это «Полярная звезда», занимающаяся страхованием от пожара, рисков в сфере технологий 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мхэ», работающая в сфере судоходства и мо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а также первая страховая компания в сфере финансов «Мирэ».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7 февраля в Корейском финансовом институте. Ранее в КНДР действовала лишь одна профи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 Корей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страховая корпорация. Отмена монополии объясняется стремление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улучшить условия для активизации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а также в целях привлече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а Корейск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института Пак Хэ Сик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траховые компании должны задуматься о возможности выхода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рынок после того, как будет смягчён санкционный режим.

Обнаружены новые подтверждения фактов сексуального насилия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В РК впервые представлены три ранее неизвестные фотографии,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щие о фактах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го сексуального насилия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На одном фото запечатлена скончавшаяся жертва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 полевые бордели Пак Ён Сим, которая была на последнем месяце беременности. Ещё на двух фото показаны несколько жертв из числа корейнок. Эти фото были найдены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у частного владельца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группой столичной мэрии и Сеуль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ежде РК была вынуждена ссылаться на отсканированные копии фотографий, хранящихс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управлении архивов и документации США. Три вышеуказанных фото были сделаны 14 августа и 3 сентября 1944 года. Мэрия Сеула 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ая группа организует выставку, на которой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фото, видео и документальные материалы, собранные к настоящему моменту. Выставка пройдёт с 25 февраля по 20 марта в Сеульском городском строительном центре.

Корейки выступают против закона, запрещающего аборт

В Р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о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49 тысяч случаев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прерывания беременности. При этом три четверти женщин считают необходимым пересмотр закона о наказании за аборт.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ённого Корейским институт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ых проблем среди 10 тысяч женщин в возрасте от 15 до 44 лет. Выяснилось, что 20% женщин имели опыт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прерывания беременности. 47% из них были не замужем, 38% состояли 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ом браке, а 13% в гражданском. При этом 97% подверглись операции по удалению плода, а 3% принимали специальные препараты. Уровень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прерывания беременности в стране постепенно снижается. Если в 2005 году он составлял 29,85%, то в 2010 – 15,8%, а в 2017 году – 4,8%. Это может быть связано с увеличением доли граждан, не желающих заводить ребёнка и снижением количества женщин в возрасте от 15 до 45 лет. Между тем, 75,6% женщин, в том числе не имеющих опыта беременности, выступают за изменение закона,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его наказание за аборт. Среди причин такой позиции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объектом наказания в этом случае является только женщина, на создание неблагоприятной ситуации для женщин, а также на личный выбор каждого. (RKI)

Как готовится встреча Трампа и Ким Чен Ына во Вьетнаме

Всего десять дней осталось до начала второй личной встреч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Ким Чен Ына, которая пройдет в Ханое 27-28 февра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ША, КНДР и Вьетнама уже ведут активную подготовку на месте, подбирая гостиницы для своих лидеров и согласовывая прочие формальности.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явились сообщения, что Ким может прибыть пораньше и посетить расположенный поблизости завод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Samsung Electronics.

В пятницу и субботу в Ханой одна за другой прибыли облетные группы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оторые сразу же приступили к организации технических деталей предстоящего саммита. Чиновники двух стран при активном содействии вьетнамцев сейчас ездят по местным гостиницам, пытаясь выяснить, какая из них, из соображений удобства,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прочих факторов, больше подходит для их лидер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ьетнамские 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НДР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уже отобрали три гостиницы в качестве возможного места для пребывания Ким Чен Ына. По слухам, один отель из этой тройки уже вычеркнули, но какой именно понравился, пока держат в тайне. Впрочем, стоит признать, что подобные слухи всегда циркулируют в изобилии накануне подобных встреч, а потому не исключен фактор и намеренной дезинформации ради безопасности глав государств и стремления до последнего момента сохранить в тайне реальное место их проживания.

Власти Вьетнама заявили, что уже начали вводить повышенные м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вязи с предстоящим саммитом. С 17 февраля в Ханое начали работать 96 специальных патрульных групп полиции, которые намерены провести "профилактическую работу" с целью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разного рода инцидентов и снижения уровня преступности. Основные объекты 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Ханоя, а также имеющая отношение к саммиту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в ближайшие часы будут взяты под круглосуточную охрану.

В субботу МИД Вьетнама распространил заявление, что началась

аккредитация журналистов, которые хотя бы осветить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Желательные должны подать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до 21 февраля. Определено и место дл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есс-центра саммита. Он будет открыт во Дворце дружбы и культуры Ханоя.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одолжают спекуляции по поводу времени прибытия Ким Чен Ына во Вьетнам. С большой вероятностью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он совместит саммит с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и своей официальный визит во Вьетнам. Вопрос в том, будет ли это до или после общения с американским президентом. 18 февраля агентство Reuters со ссылкой на источники сообщило, что Ким прибывает в Ханой 25 февраля, используя день прилета и 26 февраля для мероприятий официального визита во Вьетнам. В эти дни у него пройдут встречи с руководством страны. Аналогичную версию о возможном официальном визите накануне саммита США-КНДР примерно неделю назад озвучила и южнокорейская разведка.

Впрочем, есть сторонники и и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До этого источник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заявили о том, что программа официального визита Кима во Вьетнам пройдет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саммита с США. Ряд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Вьетнама на условиях анонимности также сказали, что "слышали о том, что визит состоится после саммита".

По мнению специалистов, точные даты власти Вьетнама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назовут, но сделают это буквально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до самих мероприятий.

Внимание журналистов сейчас приковано к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летной групп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оторая,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готовит поездки Ким Чен Ына и на промышленные объекты Вьетнам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НДР побывали в провинциях Бакнинь, Тхайнгуен и в городе Хайфонг, где есть ряд крупных промзон. Интересно, что как раз в упомянутых провинциях есть два крупных завод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электронного гиганта Samsung Electronics, где производится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половина всех мобильных телефонов этой компа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цы, как выяснили журналисты, проехали и в районе этих заводов, что спровоциро-

вало спекуляции о возможности визита Ким Чен Ына на один из объектов Samsung Electronics. В самой компании сказали, что они пока не получали никаких уведомлений о намерении Кима побывать на их производстве. С учетом межкорейского потепления, желания Вьетнама сыграть активную роль в сближении двух Корей, а также большого личного интереса Ким Чен Ына ко все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 новинкам вполне возможно, что о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смолит завод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что само по себе станет знаковым событием.

Но точные места проживания и экскурсий лидеров КНДР и США не так важны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о чем именно они договорятся по итогам общения в Ханое.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над этим в авральном режиме работает группа переговорщиков двух стран, пытаясь согласовать план действий. Спекуляций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отношении точного содержания возможны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хватает, но точно никто ничего не знает.

Есть предположения,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огласится на демонтаж своего ядер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Йонбене, проведение инспекций на ряде объектов, а также пойдет на другие шаги в обмен на отказ США от части санкций. Но есть мнение, что Вашингтон не будет отменять санкции, а согласится подписать с КНДР официальное заявление о прекращении войны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окружении Трампа также существуют опасения, что Ким сможет в личном общении перехитрить американского лидера, используя личную особенность того не вникать в детали соглашений и согласится подписать какие-то невыгодные для США условия прямо в ходе беседы тет-а-тет.

Но в любом случае сейчас очевидно, что если первый саммит США и КНДР в Сингапуре 12 июня 2018 года имел большое символ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и сам факт прямого диалога Кима и Трампа стал большим результатом, то от встречи в Ханое ждут уже не общих деклараций, пожимания рук и фотографий с голливудскими улыбками, а реальны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по части снижения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в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МИ: США и КНДР могут обменяться официальны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ми

США и КНДР серьезно рассматрив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обмена официальны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ми, что станет первым шагом на пути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Вашингтоном и Пхеньяном. Есть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будут подписаны в ходе ближайшей встречи в Ханое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Ким Чен Ына, которая пройдет 27-28 февраля в Ханое. Об этом со ссылкой на свои источники сообщил американский новостной телеканал CNN.

Как отмечает CNN, пока речь идет о возможности открытия не полноценных посольств, а офисов связи, которые, если все будет согласовано, появятся в Вашингтоне и Пхеньяне. Американцы планируют направить несколько сотрудников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которые и сформируют костяк офиса связи. Возглавит их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й дипломат США, который владеет корейским.

Возможно, что на первых порах данный офис связи США будет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дного из посольств союзных Вашингтону государств, которые имеют дипотношения с Пхеньяном.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интересы США в КНДР представляет посольство Швеции.

Ранее в ходе саммита в Сингапуре в ию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и Ким Чен Ын договорились работать над тем, чтобы установить дипотношения. Обмен офисами связи

станет первым реальным шагом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прочем, как признают эксперты,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е считает, что офисы связи станут достаточным шагом со стороны США в плане ответа на действия КНДР по ядерному разоружению. По словам источника CNN, КНДР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ослаблении санкций, которые мешают ее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и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

CNN также напомнил, что в 1994 году США и КНДР уже договорились об открытии офисов связи, где должны были работать по семь сотрудников. Однако эти соглашения были аннулированы Пхеньяном после очередного обострени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ША и КНДР, когд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сбили американский вертолет, залетевший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Отметим, что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ША и КНДР ведут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готовя саммит в Ханое. Во вьетнамской столице уже действуют передовые группы,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подбором гостиниц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их лидеров и согласовывая прочие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моменты. Параллельно идут интенсив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на рабочем и экспертном уровне, где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двух стран определяют то, что Трамп и Ким подпишут в Ханое и о каких уступках друг другу они договорятс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чествую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канун важ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раздни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зрительном зале Чехов-центра собрались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расквартированного в регионе 68-го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пограничники, сотрудники ведомств силового блока, ветера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от имени главы региона –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здравил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с наступающим Днем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 Конечно, главные герои праздника – во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иловых структур. Люди,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овековой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и были первыми, кто встречал агрессора, давал жесткий отпор врагу. И сегодня вы продолжаете с честью исполнять свой служебный долг, успешно решая самые сложн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задачи на дальних и ближних рубежах страны, в том числе и в нашем – пограничном регионе!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И.о.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благодарил ветеранов, отстоявших независимость Родины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впоследствии восстановивших разрушен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Почетными грамот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и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губернатора за добросовестное исполнение воинского долга, высокие показатели в служе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укреплению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региона был поощрен ряд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зимни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завершилис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6 февраля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остоялась красочная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масштаб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которая стала кульминацией больш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праздника.

Яркое шоу, собравшее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зрителей, подготвила внушительная постановочная группа: артисты, художники, режиссеры, декораторы и строители.

Церемонию открыло выступление известного якутского ансамбля танца «Гулун». Далее свои творческие номера показали коллективы балета на льду из Москвы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местные творческие силы. Бурными овациями зрители встретили выступление столичного гостя Влада Топалова и взмывшие вслед за этим в вечернее небо огни фейерверк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был спущен официальный флаг игр, об их закрытии объявил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ервые зим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завершены! И я искренне благодарю всех, кто сделал эти соревнования настоящим праздником. Мы увидели зрелищные состязания, начал спортивной борьбы. Ребята показали огромную волю к победе. Но самым ценным стала атмосфера дружбы, которая царил в дни соревнований. Надеюсь, что Сахалин оставил в сердцах наших гостей самые приятные впечатления. Мы всегда будем рады видеть вас снова, — обратилс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 собравшимся.

Почетный гость игр, легенда мирового хоккея и двукратный олимпийский чемпион Вячеслав Фетисов отметил великолеп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соревнований на Сахалине.

— Я в восторге от того, что увидел на острове. Это фантастическая атмосфера настоящего спортивного праздника. Спасибо сахалинцам за то, что стали родоначальниками новой спортивной традиции в России, организовав первые зимни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На островной земле родилась большая спортивная семья. Уверен, что дети, участвовавшие в играх, станут друзьями на долгие годы, а мы, взрослые, последуем их примеру, — сказал Вячеслав Фетисов.

Участниками первых зимних игр «Дети Азии» на Сахалине,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под патронат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и эгидой ЮНЕСКО, стали 1196 спортсменов из 20 стран. В их числе – Казахстан, Монголия, Узбекистан, Туркменистан, Непал,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Таиланд, Гонконг, Иордания, Таджикистан, Филиппины, Япония, Афганистан, Киргизия, ОАЭ, Индия, Кувейт, Сирия, Армения. Россию представляли команды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кутии, Москвы, Татарстана, Башкортостана, ряда регионов Сибири, Уральского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ых округов.

Спортсмены разыграли 93 комплекта медалей в восьми видах спорта — горные лыжи, сноуборд, биатлон, лыжные гонки, прыжки с трамплина, фигурное катание,

шорт-трек и хоккей.

Сборна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общем медальном зачете игр заняла третье место. У остров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 26 наград различн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На первой позиции расположилась команда Ураль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на второй – Москвы.

К «Детям Азии» на Сахалине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большая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ая работа, в частности, построена входная группа на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модернизирована канатная дорога. Уникальный, не имеющий аналогов в стране по доступности,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стал еще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строили уникальный лыжебиатлонный комплекс с самой современно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ишенной системой и самым сложным рельефом трасс, провели реконструкцию сноуборд-парка, трампли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всех объектах, где проходили соревнования, было полностью обновлено оборудование. Все это будет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и после соревнований.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оказала, что может принимать круп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Только в волонтерской программе игр было задействовано 1000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Ребята работали атташе спортивных команд, переводчиками, гидами, помогали на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ах, — отметил президен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митета игр «Дети Азии» Дмитрий Глушко. — Следующие зимние игры пройдут в 2021 году и сейчас решается вопрос о месте их проведения. Среди претендентов – несколько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стран Азии. Принимать соревнования в 2021 году хочет и Сахалин. Я уверен, что это самое лучшее место для игр.

Дмитрий Глушко добавил, что сейчас успешный опыт проведения первых зимних игр «Дети Азии» 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енимают делегации из Монголии и Кемеровской области.

Ростелеком»: На Курилы пришел высокоскоростной Интернет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был ускорен запуск в работу подводной волоконно-оптической линии связи, которая обладает пропускной способностью до 40 Гбит/секунду. Цены на высокоскоростной Интернет и кабельное телевидение не отличаются от сахалинских.

Такую информацию в ходе рабочей встречи с главо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озвучил вице-президент – директор макрорегионального филиал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АО «Ростелеком» Александр Логинов.

— Также важно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ценовую политику. Современные цифровые сервисы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лагать курильчанам по тем же тарифам, которыми пользуются сахалинцы,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егодня уже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жителей Курильска подключены к Интернету.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свыше 30 процентов жителей стали абонентами «Ростелекома». А до конца февраля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ключить к современной сети большую часть домов в селах Крабозаводское и Малокурильское на острове Шикотан.

— По инициативе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мы изменили подход к ценообразованию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жители Итурупы, Кунашира и Шикотана пользуются высокоскоростным Интернетом и смотрят кабельное телевидение по доступным тарифам, — сказал Александр Логинов.

Прокладка оптоволокну по дну Охотского моря велась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ов на 2016-2025 годы. Общая протяженность линии связи составила около 850 километров.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средства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2,7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 ПАО «Ростелеком» (6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ходе встречи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остелекому» предстоит большая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Учитывая планы по развитию в регионе кластера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дальнейш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крупнейшей российской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компанией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ым.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ал старт кадровому конкурсу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овал сбор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 кадровом Конкурсе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 этом 18 февраля 2019 года сообщил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ременно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дровый Конкурс по инициативе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оводи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втономной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Завершившиеся игры «Дети Азии» показали, что есть большая сильная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эту команду входит не тольк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ргкомитет Игр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е руководители спортивных учреждений, но и журналисты, жители и го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 этой команды большие задачи. Настало время выявить лучших и вовлечь их в органы власти на новые уровни и в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Хочу объявить, что мы решили провести кадровый Конкурс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ообщил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в,

что планируется набрать кадры не только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о также в различные сферы и в корпоративные звенья.

По его словам, основной задачей является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чтобы нацеленные на успех молодые люди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двигаться, быть полезным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работой социальных лифтов.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ообщил о призах,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для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Главный приз —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занять высокие посты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уровня заместителей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инистров, руководителей агентств, мэров городов. «Мы бы хотели сформировать полноценный сильный резерв», — подчеркнул Лимаренко.

Кроме того, финалисты Конкурса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чтобы продолжить учебу, а участникам с интересными социальными инициативами будут предложены средства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этих проектов.

«В ближайшие два месяца нам предстоит большая серьезная работа, нацеленная на укрепление нашей сахалинской команды», — подчеркнул в заключени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дровый Конкурс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жно назвать преемником Конкурса «Лидеры России»,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ся автономной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Как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блока оцено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Дмитрий Лисицын, Конкурс будет состоять из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и очного этапов. Желающи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соискатели сначала регистрируются на сайте, заполняют анкеты, составляют эссе. Лисицы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формальные требования к участникам минимальн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могут даже студенты-старшекурсники. Все подробности можно найти на сайте проекта.

После регистрации участники допускаются до онлайн-тестирования, по итогам этого этапа будут отобраны примерно 200 лучших претендентов. Их пригласят на очный этап, где разделят на команды и предложат пройти разные тесты и задания, моделирующие управлен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Мы ищем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которые умеют работать с информацией,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я, делать выводы, которые не пасуют перед трудностями, могут отстаивать свою точку зрения, убедить других в своей правоте», — сказал Лисицын,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именно эти качества и будут оценивать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 очном этапе Конкурса.

«Также важно, чтобы конкурсант думал не только о себе, но и о людях, чтобы для него было важно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 он.

Эксперты оценки — люди, которые имеют богатейший опыт, все они участвовали в этой роли в Конкурсе «Лидеры России», региональных кадровых проектах. Кроме того, они никак не связаны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поэтому непредвзяты и абсолютно объективны. Еще одним фактором, обеспечивающим честность и непредвзятость конкурсного отбора, является работа Наблюдательного совета Конкурса.

По слов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Наблюдательного совета Конкурса,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а Иконникова, Совет сформирован и полностью готов к работе. В него вошли люди из разных сфер, все они известны и уважаемы в регионе.

«Если вдруг возникнут какие-то спорные ситуации, последнее слово будет за Наблюдательным советом», — подчеркнул Иконников. Он еще раз отметил, что все члены Совета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я взвешенно и четко, поскольку отвечают за них своим честным именем.

В заключение мероприятия журналисты задали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вопросы. В частности,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спросили, означает ли проведение кадрового Конкурса, что в регионе наблюдается кадровый голод. По словам Лимаренко, ответ зависит от того, что подразумевать под этим понятием. «Если мы хотим прорыва, идти вперед, ставить амбициозные задачи, в ближайш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решить крупные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продвигнут нас вперед — то да, таких кадров не хватает. Здесь нужна команда молодая, перспективная, инициативная», — пояснил он.

Если же нужно просто держать ситуацию в состоянии равновесия, выполнять социальные задачи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ситуации — то здесь в регионе полный порядок. «Вот проект "Дети Азии" был осуществлен, решили задачу. А чтобы увеличить жилье в два раза — нужны новые люди», — привел пример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Этап сбора заявок продлится до 17 марта включительно. Для участия необходимо зайти на сайт Конкурса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оформить заявку.

Справка:

Конкурс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кадровый проект для молодых перспективных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стремящихся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й потенциал в регионе. Целью проекта является формирование высокоэффективной команды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для их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 развит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дровый Конкурс является открытым проектом, все участники которого имеют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нут самые достойные кандидаты с наивысшим потенциалом, которые пол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нять должности в обла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госкорпораций, частного бизнеса и др.

Сайт конкурса — командасахалина.рф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면의 계속)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동안 가장 고통과 설움, 어둠이 전형적으로 존재했던 이곳 사할린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왔다."며 "새로운 100년의 역사는 사할린 동포들의 아픔을 거둬내고 선조들의 힘과 뜻을 되살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대행의 축사는 경제발전부가 최근에 대독해 "모든 나라의 역사에는 국가의 자존감과 용기를 드러내는 순간들이 있었다. 3.1만세운동은 한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의 하나"라며 "일제 강제 징용으로 온 한인들에게 이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긴 세월 만세운동을 기억하고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보전해왔다."고 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사할린 한인들이 힘을 합쳐 사할린 한인의 위상을 높여야 하며 분열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역사적 정통성에 입각해 사할린한인협회를 통한 민족적 도약을 추구하고, 변화와 개혁으로 희망찬 미래를 개척하여 '성숙한 한인사회',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사할린 한인의 위상을 위해 지혜와 뜻을 모으자고 했다.

본격적 기념식 순서로 과거 100년 전 여학생과 남학생의 교복을 입은 4인조 태극기 행렬 3그룹이 무대에 올랐다. 이어 '기미 독립선언문(3.1독립선언서)'을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여 한국 및 해외에서 온 귀빈들과 사할린 한인들, 한국인으로서 사할린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경제계와 기독교계의 인사들이 무대에 올라 돌아가며 한 문장씩 낭독했다.

3.1독립 선언문은 당시 사학자 최남선

"100년 전 우리 선열들이 세우고 일궈냈던 그 고귀한 뜻이 이제 바로 서야 합니다."

선생이 초안을 작성하고 만세운동에 맞추어 선언서 형식으로 작성해 민족대표 33인이 공동명의로 선포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평등에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에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신다.'라고 서문을 낭독했다.

1905년 조선과 일본이 맺은 치욕적 을사늑약 이후, 십여 년이 넘도록 일제는 강압과 위력으로 조선사람을 구속하고 야만족같이 대우했다. 그리고 조선의 왕 '고종'이 1919년 1월 21에 서거한다. 이유는 독살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고종'의 독살설이 퍼지고, 같은 해 2월8일 일본 도쿄에서 조선의 유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는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한반도 곳곳에서는 대규모 만세운동이 조직된다. 3월 3일로 정해진 고종의 장례식 날짜에 맞추어 전국 동시다발 만세운동의 계획은 이를 앞당겨 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3.1만세운동'이다. 당시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만세운동의 참가자 수는 사전에 50만 명 이상, 사망자는 약 7천 명 이상으로 기록됐다.

3월 1일은 사할린에 있는 한국 공관에 서도 지금까지 공휴일일 뿐이었다. 한국

어 교육자료에도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정신과 기상을 가르칠 내용이 빠져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제야 사할린에 남은 사할린 한인 3세와 4세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행사가 사할린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의의가 깊고,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왔다.

선언문 낭독 후 무대와 객석의 관객들이 일어나 태극기를 잡고 손을 들어 '대한독립 만세!'를 세 번 외쳤다. 사할린 한인으로서의 낯선 기념 방식이기도 하지만 객석의 관객들은 흔쾌히 따라주었다.

이어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유럽지역회의 한국 여와 또는 한민족문화를 잘 익히고 있는 10명의 사할린 한인 학생들에게 증서와 장학금 1000유로를 전달했다. '위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됨으로 증서를 수여합니다.'라는 문구로 어떤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는지 알 수 있었다.

이어 3.1절행사 준비위원회에서는 준비를 위해 수고한 박순옥 사할린주 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민주평통 자문회의 박정훈(블라디보스톡)·김봉재(오스트리아) 간사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후 '삼일절 노래'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렀다. 삼일절을 알리는 영상

이 극장 화면에 펼쳐지고 노랫말도 적어 무슨 의미의 노래를 부르는지 이해가 더 쉬웠다. 이어 뮤직 비디오 '나의 땅(래퍼 비와이가 작곡, 작사)'을 상영하고 본격적으로 독립군 영령들을 위한 '진혼무'를 명무 박경랑과 최은숙이 선을 보이고, 이어 피아노 4중주의 '미스터 선샤인', '아리랑 래프소디', 소프라노 김경란은 풍부한 성량으로 '아리아리랑(안정준 곡)'을, 테너 지명훈은 희망의 날을 간절히 바라는 '네순도르마(뫼치니 곡)'를 불렀다. 무용으로는 <에트노스>사할린 아동에술학교 학생들이 민요 '불새'를, 힙합팀 '36.5도'는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힘차고 정교한 힙합 댄스 '트렌디 한국'을, 한국무용에는 박경랑과 최은숙이 '신명' 춤을, 마지막으로 소프라노 김경란, 테너 지명훈과 함께 고운 한복을 입은 사할린 여성회 회원들과 사할린한국교육원 주부반,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의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내 나라, 내 겨레: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그 누구의 앞에서 환히 비추나...' 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을 부르며 사할린에서 첫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100년 전 '3.1만세운동'의 외침이 '대한 독립 만세!'였다면, 한반도가 이념으로 분단된 지금은 '남북통일, 남북우호 교류 만세!'가 아닐까.

(취재: 글/박혜신, 사진/이예식)

사회공헌재단 '글로벌한상드림', 한민족 인재 후원 위한 기부 행렬 이어져

글로벌한상드림, 차세대 한민족 인재 후원 위해 한상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설립
홍명기 이사장 10만 불 등 이사진들의 지속적인 기부로 총 약 12억 원 기금 조성



재미동포 사업가 홍명기 M&L홍재단 이사장이 한상들로 구성된 사회공헌재단 '글로벌한상드림'(이사장 홍명기)에 약 1억 1,200만 원(미화 10만 불)의 기부금을 쾌척했다고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밝혔다.

홍명기 이사장의 기부로 현재까지 약 12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으며, 글로벌한상드림은 기금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개최된 '2018 세계한상대회'에서 열린 글로벌한상드림 총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홍명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들은 2019년 법인 운영을 위한 기부를 결의했다.

이에 앞서 법인 설립 당시 국내 청년들의 장학 사업을 위해 이사진들이 각 1억 원을 기부함과 동시에 매년 법인 운영을 위해 추가의 기부를 해오고 있다.

- 지난 1월 31일에는 정영수 CJ그룹 글로벌경영고문(싱가포르)이 1억 원, 지난해 10월 세계한상대회에서는 박기출 PG홀딩스그룹 회장(싱가포르)이 1억 원을 국내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한 바 있으며, 그 외 이사진들도 약 5,600만 원(미화 5만 불)의 추가 기부를 결의했다.

홍명기 이사장은 "글로벌한상드림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한상의 이름으로 모국사랑과 민족사랑을 실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장(場)이 되길 바

라며, 특히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 세계 한상의 모국 기여가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한상드림'은 홍명기 M&L홍재단 이사장(미국)을 비롯해 송창근 KMK 글로벌스포츠그룹 회장(인도네시아), 임도재 글로벌엔지니어링 회장(가나), 이숙진 제마이홀딩스 회장(호주), 김점배 ㈜천관 회장(오만), 오세영 코라오그룹 회장(라오스)으로 법인 이사진을 구성한 후 장학생 지원('17년~'18년 8명), 취약계층청년 취업지원('18년 4명), 청년일자리 지원('19년 진행 중) 등의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 재외동포신문 '2018 올해의 인물' 선정

재외동포신문(발행인 이형모)이 주최하는 '2018 올해의 인물' 수상자로 광주 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가 선정됐다.

재외동포신문은 지난 29일 신조야 대표를 사회봉사부문 '2018 올해의 인물'로 선정해 시상할 것이라고 고려인마을에 알려졌다.

우즈벡 출신 고려인 동포 3세인 신조야 대표는 2002년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우즈벡어와 러시아어 통역원을 맡으며 국내 귀환 고려인 동포를 위한 봉사를 시작했다. 이듬해엔 자비를 들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고려인지원센터를 설립, 광주로 이주 고려인 동포들의 한국사회에서 안정된 정착을 위해 헌신했다. 광주 정착, 고려인 동포 수가 많아지자 2006년부터는 마을공동체인 '고려인마을'을 형성한 후 대표를 맡아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에 매진했다.

신조야 대표는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에 헌신하며, 출입국, 산재, 의료, 체불, 통역, 송금 업무 지원 등 하루 평균 20여 건 연간 5,000건이 넘는 상담을 처리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산경찰서, 출입국관리소 등 15개 관공서와 192개 기업체의 통역자원봉사자로 일하기도 했다.

2013년부터는 국내 최초로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고려인의 날' 행사도 개최해 올해 7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조야 대표는 고려인마을방송 고려FM 설립, 고려인마을 어린이집 설립, 지역아동센터 설립, 고려인 동포 자녀를 위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고려인마을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동포 생존 기반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립투사 후손 고려인 동포의 안정된 한국사회 조기 정착에 기여해 왔다.

한편, 국내·외 거주 740만 재외동포를 대신해 감사를 전하고자 재외동포신문은 창립년도부터 한 해 동안 재외동포사회에서 큰 역할을 한 인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 그들의 봉사 정신과 실천을 기리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신조야 대표는 16회 수상자로 기록된다. 시상식은 2월 25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타임즈 김혜경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스키마라톤에 참가자를 기다린다

트로이츠코예 스키마라톤이 2월 24일 사할린에서 개최된다. 행사 참가에 희망자들을 모두 초대한다.

마라톤은 전통적으로 두 날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첫 마라톤은 2월 24일과 3월 10일에 열리는데 이번 주말에 16,7 km(1바퀴), 33,4 km(2바퀴)와 50 km(3바퀴)를 달릴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마라톤은 <엑손>석유·가스 유한회사가 후원한다. 후원 측에서는 마라톤 전체 코스를 경주한 참가자들과 우승자들을 위해 추가 상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니와 스포츠학교 교장 미하일 삼슈트지노브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기념 배지와 스키 스틱들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33,4 km를 경주한 여성들과 50 km 크로스컨트리 참가자들에게는 가슴에 달았던 참가번호를 선사하고, 50 km 경주의 1위부터 10위까지 선수들에게는 상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신청은 이메일 troitsk_sportscool@mail.ru로 할 수 있다. 조직 측은 선수들이 의사 진단서와 스포츠 보험증서를 지참해야 하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사할린주스포츠관광청소년정책부 홍보실이 전했다.

Желающих ждут на лыжном марафоне

Троицкий лыжный марафон состоится 24 февраля на Сахалине.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глашают всех желающих.

Марафон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ходит в два дня. В этом году первые заезды состоятся 24 февраля, а остальные — 10 марта. В эти выходные на трассах ждут желающих преодолеть дистанции в 16,7 км (один круг), 33,4 км (два круга) и 50 км (три круга).

Спонсором марафона выступает "Эксон Нефтегаз Лимитед". Компания выстави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ризы для всех, кто выйдет на старт полного марафона, а также тех, кто займет призовое место.

—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мы подарим значки и наклейки на лыжи. Женщины, преодолевшие 33,4 км, и все участники гонки на 50 км получат нагрудный номер. Спортсменов, занявших с 1 по 10 места на 50-километровой дистанции, ждут отдельные призы, —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анивской спортшколы Михаил Шамсутдинов.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 на адрес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troitsk_sportscool@mail.ru.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поминают, что спортсменам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при себе медицинскую справку и спортивную страховку,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미술박물관 부랴트문화의 날 행사에 초대

2월 24일 15시 <내 민족의 문화>전시회와 사할린주 민족문화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이 섬지역 주민들과 관람객들을 '부랴트문화의 날' 행사에 초대한다.

이날 부랴트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알게 되고, <부랴트 문양> 활동교실에 참가하여 나무로 된 중에 색칠하며 남성, 여성 및 아동의 전통의상과 전통 장식품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입장은 자유다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приглашает на День бурятской культуры

24 февраля в 15.00 в рамках выставки "Культура моего народа" и Дней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приглашает островитян и гостей области на День бурятской культуры.

Вы познакомитесь с историей и традициями бурятского народа, сможет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занятии "Бурятский орнамент" с росписью деревянных колокольчиков, узнаете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ужского, женского и детского костюмов, традиционного орнамента. Вход свободный.

유즈노사할린스크, 해외 교육에 대한 무료 세미나 개최

2월 27일 18시 30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8-11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해외 유학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초대 강사는 캐나다, 미국, 호주 교육기관의 공식 대표인 다리아 사호노다.

세미나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알 수 있다.

공부할 국가와 대학을 선택하는 방법

1. IELTS와 ЕГЭ(국가시험) 시험 없이 입학할 수 있는 방법

2. 졸업 후 높은 보수를 받는 법

3. 해외 여름프로그램으로 영어를 배우는 법

4. 이와 함께 자신의 성격 유형을 말해줄 온라인 테스트와 전망적인 학과 분석이 학생들을 기다린다.

세미나는 무료이며 행사장은 유즈노사할린스크 퍼시픽 플라자 호텔 회의실 (2층)에서 진행된다.

문의 전화: 8 (4242) 444-027.

Бесплатный семинар об образовании за рубежом состои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7 февраля в 18:30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ет семинар для учеников 8-11 классов и их родителей. Приглашенный гость — 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Канады, США, Австралии Дарья Сахно.

На семинаре вы узнаете:

1. Как выбрать вуз и страну обучения

2. Как поступить без экзаменов IELTS и ЕГЭ

3. Как получить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ую работу после обучения

4. Как выучить английский благодаря летним программам за рубежом

Также детей ждет онлайн-тестирование на определение типа личности и разбор перспективны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Семинар бесплатный.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конференц-зал (2 этаж) гостини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асифик Плаза Сахалин".

Подробнее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444-027.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2019년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2019년 6월 1일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사할린 및 연해주·극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현지인)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 **공모주제:**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 **공모기간:** 2019년 5월 중순까지

• **시상:** 상장과 한국방문권 비롯한 여러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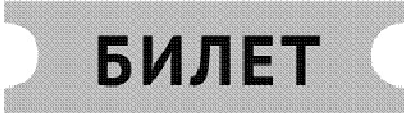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을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아니면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거리 37, 새고려신문사로 보내주시시오.

전화: 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